

# 민심 이반·검찰수사 압박에 '더 버티기 어렵다' 판단

## ■사퇴 배경과 전망

여권, 지지율 추락 '심리적 충격' 작용  
부담 털어낸 당정청 개혁작업 드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끝내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점차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하면서,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전격 사퇴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를 빼다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짓는 등 나름의 '소명'을 일단 완수했다는 판단 역시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격 사퇴 발걸음을 앞당긴 것이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으로서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한 채 '명예퇴진'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10월~11월을 전후해서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이런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 장관 논란이 불거진 후 계속돼 온 여론 악화가 좀처럼 반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운영에 가해지는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진 것은 물론, 곧 역전될 흐름까지 보여 청와대와 여권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으며, 조 장관 역시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총선을 눈앞에 둔 수도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사태로 진영 간 대결이 격해지며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난맥상을 돌파하고 국면을 새롭게 전환해 검찰개혁 및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의 사퇴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도 조 장관의 사퇴 타이밍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발표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국 장관으로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우선 매듭을 지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었던 조 장관이 일단 사퇴함에 따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큰 짐을 내려놓은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악재'를 털어버리면서 반동을 피할 상황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조국 정국하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오가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조국 리스크'를 털어버린 점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이 남긴 '검찰 개혁안'을 당·정·청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그간의 실정을 만회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나아가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울림마속'의 심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이던 만큼 집권 반환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 조 장관의 사퇴에도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됐던 '검찰개혁'과 '조국사퇴'의 두 목소리가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책임에서 청와대·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 사퇴 공세를 퍼왔던 보수 야당들도 공세를 늦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 수사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검찰 수사 결과나 재판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의 범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국민갈등 야기 송구...검찰개혁 끝까지 매진"

###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사퇴까지

-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16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 20일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고교 의혹문 1차 저자 논란
- 23일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운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서울대·고려대 학생들, 조 후보자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
- 27일 검찰,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 9월 2일 조 후보자, 국회에서 기자회견
- 4일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6일 지명 28일 만에 조 후보자 인선문해 개회,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격 임명
- 10일 검찰, 정경심씨의 자택 및 동양대 PC 하도 교체 정황 포착
- 14일 조국 5촌조카 귀국, 검찰, 구속영장 청구
- 16일 학교장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앞에서 사법직 조국 5촌조카 구속
- 23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 28일 서초동서 검찰개혁 대규모 촛불집회
- 10월 3일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조사
- 8일 조국 장관 취임 한달, 검찰개혁 방안 발표
- 9일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2일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대규모 촛불집회
-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 발표 후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표명

연합뉴스

### "조국-윤석열 조합 꿈같은 희망 됐다" 개혁 과제 이달내 국무회의 의결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진영간의 대립 등 혼란을 추스르고, 검찰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 결단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들을 실현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특히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 이어나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 관여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언론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거론하며 "이제는 국민 통합에 힘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후임 누구?...제1 인선 기준은 '검찰개혁 의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회담들을 제시해 놓고 떠나는 만큼 다음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바탕'을 이어받아 개혁안을 이행하는 막중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장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 검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조 장관 후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 여권의 검찰 개혁안을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야권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를 않을 확률

이 높다는 점 역시 정부·여당의 고민이다.

조 장관의 사례에 비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독한 국회 검증무대에 오를 대상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개혁 의지'를 새 법무부 장관의 인선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국표 검찰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2018 KS-COI

클릭상품질지수  
여행사 부문 1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위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인증

세계권위 여행전문지 TTG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8년 연속수상

## 산티아고 순례길

11/9, 16, 23 11월 단 3회 출발

산티아고로 떠나는 가장 빠른 길!  
국내최초 대한항공 산티아고 특별전세기

**롯데관광만의 특별한 할인혜택!**

5% 할인 + 10만원 할인(4명이상) \*10/15까지 예약시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특징

**전일정 4성급 호텔**

알베르게 숙박 X

**전문 인솔자 동행**

순례길 전문 가이드

**항로미사 참석**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전용차량 대기**

배낭없는 편안한 여행

---

**순례길 체험+관광 4일 걷기**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북부 8대도시] 9일 정통 3,799,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루고/오비에도/산티아고

---

**'제주올레'의 설계자 서명숙 이사장과 함께하는 도보여행**

**11/23 [단1회] 순례길 5일 걷기**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4대도시] 9일 정통 3,899,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산티아고/목시야/피니스테레

---

**특별한 여행지** 스페인 북부 완전일주 (빌바오+산세바스티안) 9일 정통 3,899,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있음 • 리스본/산티아고/피니스테레

가경포항내역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보단계]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참수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예약비 가산계좌로 인입금입니다. ●종료구성: 일반여행업 제42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번호: 1589-8892 ●여행보험사: 부산형/속초형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임차된 숙박 등 운매구경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